



사사기 17-21장과 친왕권적 신학

이희학(목원대)

1. 들어가는 말

신명기사가의 역사서(DtrG)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국이다.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열왕기하에 이르는 거대한 역사서는 분량 면에서 볼 때 절반 이상을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대해 할애를 하고 있다. 주제 면에서 볼 때도 이 역사서는 ‘왕국 이전의 이스라엘 -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왕국 이전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보도하고 있으며, 왕국 시대에 대해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취급하고 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신명기사가의 역사서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왕국 제도가 탄생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를 주도해 나갔던 인물들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www.kci.go.kr

들을 ‘재판관’(사사)이라고 부른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었던 네 그룹의 지도자들(재판관, 왕, 제사장, 예언자)의 역할과 임무를 소개하는 신명기의 본문(신 16:18-18:22)에서 재판관(사사)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왕(מֶלֶךְ)이 재판관(사사, שֹׁפֵט)¹⁾의 뒤를 이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백성의 최고 재판관으로서의 왕의 사법적 임무를 강하고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 우리는 편의상 재판과 판결을 통해 사법적 활동을 했던 비군사적인 지도자들을 소사사라고 칭하고, 전쟁의 영웅이며 전투적 용맹성을 지닌 군사 지도자들을 대사사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부터 왕국 탄생 이전까지의 시대를 취급하면서 사사들의 활동을 보도하고 있는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도입부(삿 1:1-3:6)는 가나안 땅의 일부 정복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연합적인 군사행동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정복이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서와는 달리- 점진적이며 부분적이고 각 지파별로 행해진 개별적인 정복과정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핵심부분(삿 3:7-16:31)은 사사들의 활약상을 보도하고 있는데, 대사사들의 활동³⁾은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반면, 소사

-
- 1) H. Niehr, *Herrschen und Richten. Die Wurzel špt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Würzburg: Echter Verlag, 1986), 124.
 - 2) 정석규, “왕의 법(신 17:14-20)의 이중적 기능,” 「구약논단」 제 34집 (2009년 12월), 30-50; 소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조직들과 재판관들,” 「구약논단」 제 56집 (2015년 6월), 155-175.
 - 3) W. Richter, *Die Bearbeitungen des "Retterbuches" in der deuteronomischen Epoche*, BBB 21 (Bonn: Peter Hanstein Verlag GmbH, 1964), 3ff.는 신명기사가 이전의 사사기를 ‘북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책(Retterbuch)이라고 부르고, 대사사들의 활동을 보도하는 3:12-9:55에 한정시키고 있다. 그는 이 책의 성격을 “반군주적이며 고대 이스라엘 지향적”으로 규정짓는다. 이 구원자 책의 저자는 기원전 9세기 후반 북 왕국의 예언자 그룹에 속한 자이며, 그의 궁극적 관심은 아웨에 의해 부름을 받은 대사사가 이끄는 아웨의 전쟁에 있었다. 리히터에 의하면, 이 구원자 책은 후에 신명기-신명기사가가 개정 작업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 개작의 특징은 ‘백성들의 죄-하나님의 심판-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외침-사사에 의한 구원’이라는 반복적인 도식 속에서 사사시대가 진행된 것으로 서술하였다는 것에 있다. 이 신학적 개작을 통해 원래의 개별 지역에서 활약했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행위로 해석되면서 공간적 지배권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신명기사가는 역사의 순환 개념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성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사사기의 순환구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M. A. Sweeney, “Davidic Polemics in the Book of Judges,” *VT* 47 (1997), 517-529; 장석정, “사사기의 순환구조 재고,” 「신학논단」 제 84집 (2016년 6월), 137-162.

사들의 활동은 매우 간단하게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부분(17-21장)은 왕이 없던 시대에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발생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부패와 무질서, 그리고 사사 시대의 암흑상을 부록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⁴⁾ 단 지파는 종교적 혼란의 와중에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밀려나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불량배들에 의해 발생한 레위인 첩의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인해 장정 6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사사기의 부록 부분에 비교적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부데(K. Budde)⁵⁾의 연구 이래로 사사기의 부록은 신명기사가⁶⁾의 편집 작업 이후에 왕국 탄생의 신학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를 그려내기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

-
- 4) 김의원/민영진 공저, 「사사기/룻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7」(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6.
- 5) K. Budde, *Das Buch der Richter*. KHCAT (Freiburg: Verlag von J. C. B. Mohr, 1897), 110-142.
- 6) 신명기사가의 역사서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던 노트(M. Noth)의 고전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신명기사가의 기본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M. Noth, *übert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67), 54-59. 노트는 신명기사가가 이스라엘 왕국 탄생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옛 전승들에 대해 의도적인 수정작업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사무엘에 의한 사울의 기름 부음 보도(삼상 9:1-10:16)와 암몬을 격파한 후에 왕위에 오른 보도(삼상 10:27b-11:15)는 철저히 친(親) 왕권적인 전승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신명기사가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강한 반(反) 왕권적 경향의 본문들(삼상 7:2-8:22; 10:17-27a; 12:1-25)을 결합시켰다는 것이다. H.-J. Boecker, *Die Beurteilung der Anfänge des Königtums in den deuteronomistischen Abschnitten des 1. Samuelbuches. Ein Beitrag zum Problem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WMANT 3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3-5는 노트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주요 학자에 속하는데, 그는 후대의 본문들을 신명기사가의 원래적인 창작물로 간주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명기사가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친왕권적 전승들을 자신의 거대한 역사서 안에 그대로 집어넣었다. 그 이외에 다음의 괴팅겐 학파의 학자들은 복수의 신명기사가들(DtrH, DtrP, DtrN)의 활동을 주장하고 있다: R. Smend, "Das Gesetz und die Völker. Ein Beitrag zur deuteronomistischen Redaktionsgeschichte,"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FS G. von Rad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494-509; W. Dietrich, *Prophetie und Geschicht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FRLANT 10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T. Veijola,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AASF.B 198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7). 본 논문은 신명기사가에 대한 괴팅겐 학파의 견해를 전제로 진행될 것이다.

은 친왕권적 신학의 결과물로 간주되고 있다.⁷⁾ 다시 말하자면, 사사기 17-21장에서는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과연 사사기 17-21장은 후대에 첨가된 '부록'일 뿐이며, 신명기사가의 역사서 편집 작업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인가?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신명기사가적 편집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위해 편집사적이고 문헌비평적인 관찰 방법이 시도될 것이다.

2. 신명기사가적 편집의 증거들

사사기의 부록(17-21장)은 두 개의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하면서 아직 왕이 출현하지 않았던 시대의 극심한 혼란과 부패를 고발하고자 한다. 하나는, 단 지파와 관련해서 일어난 종교적 타락 사건이며(17:1-18:31),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윤리적 타락 사건이다(19:1-21:25). 전자는 미가의 집에 세워진 신상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종교적 무질서와 타락상의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후자는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에 의해 발생한 레위인 첩의 끔찍한 강간 살해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왕이 없던 시대에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은 각각의 지파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밀려 분배된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주할만한 지역을 찾다가 결국 가나안 북부 지역의 성읍(라이스)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적대감을 유발시켜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막대한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사사기

7) U. Becker, *Richterzeit und Königtum.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Richterbuch*. BZAW 192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226-296; R. Bartelmus, "Forschung am Richterbuch seit Martin Noth," *ThR* 56 (1991), 221-259.

의 부록(17-21장)이 지향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백성의 지도자 왕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부패와 무질서가 만연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 부분은 친왕권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질서와 평안을 위해 왕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⁸⁾

1)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삿 17:6b; 21:25b)

사사기의 부록을 읽다보면 우리는 친왕권적 경향의 분위기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문제들은 왕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함축적인 문장을 네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삿 17:6; 18:1; 19:1; 21:25)라는 고정화 된 문장이 사사기 부록의 곳곳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모든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악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변호적이면서도 선동적인 구절이다.

17장 6a절	בְּיָמִים הָהֵם אִין מֶלֶךְ בְּיִשְׂרָאֵל
6b절	אִישׁ הַיָּשָׁר בְּעֵינָיו יַעֲשֶׂה
18장 1a절	בְּיָמִים הָהֵם אִין מֶלֶךְ בְּיִשְׂרָאֵל
19장 1a절	וַיְהִי בְּיָמִים הָהֵם וּמֶלֶךְ אִין בְּיִשְׂרָאֵל
21장 25a절	בְּיָמִים הָהֵם אִין מֶלֶךְ בְּיִשְׂרָאֵל
25b절	אִישׁ הַיָּשָׁר בְּעֵינָיו יַעֲשֶׂה
17장 6a절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6b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8) H.-W. Jüngling, "Propaganda für das Königtum. Die Tendenzgeschichte in Ri. 19," *BiKi* 38 (1983), 63-65.

18장 1a절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19장 1a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21장 25a절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25b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개의 구절을 서로 비교해보면 한글 개역개정은 약간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17장 6a절; 18장 1a절; 19장 1a절⁹⁾; 21장 25a절과 17장 6b절; 21장 25b절은 각각 동일한 히브리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장 6b절과 21장 25b절은 왕의 부재로 인한 백성들의 악한 행동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보충적인 설명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편집사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¹⁰⁾ 사사기의 부록에서 두 번에 걸쳐 등장하는 이 상투적인 부가어는 사사기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¹¹⁾

17장 6b절과 21장 25b절은 원래의 본문에 후대의 편집 작업을 거쳐 이차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사사기 17-21장에 서술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왕¹²⁾이 없던 시대의 무질서한

-
- 9) 19장 1a절은 17장 6a절; 18장 1a절; 21장 25a절과는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직역하면 “그리고 이것은 그 때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였다”인데, 6개의 히브리어 단어들은 왕의 부재로 인한 불길한 사건의 발생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장에는 ‘이제는(왕국시대) 더 이상 볼 수 없는 과거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함축적 의미가 들어 있다. J. E. Lapsley, “A Gentle Guide: Attending to the Narrator’s Perspective in Judges 19–21,” in: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39–67.
- 10) 이 문제에 대한 복잡하고도 강력한 최근의 논쟁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G. T. K. Wong, *Compositional Strategy of the Book of Judges: An Inductive, Rhetorical Study*. VTS 111 (Leiden: Brill, 2006), 191ff.
- 11) M. Noth, “Der Hintergrund von Ri. 17–18,” in: ders., *Aufsätze zur biblischen Landes- und Alttertumskunde /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1), 133–147.
- 12) S. Talmon,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Proceedings of the 5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eds., by Pinchas Peli et al (Jerusalem: Hacohen, 1969), 242–243

현상으로 확정지으려는 명확한 신학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고정화된 문장은 사사시대를 부정부적인 혼란의 시기로 규정지음으로써 사무엘서에서 탄생되는 ‘왕국’이라는 새로운 정치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신명기사가가 왕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두 개의 구절이 신명기사가의 신학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신명기사가 이후의 최종 편집자의 손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³⁾

하지만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삿 17:6b; 21:25b)가 신명기사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본문들과 관련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장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 시절에 백성들을 권면하던 연설문의 한 구절과 언어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אֲנַחְנוּ עֲשִׂים פֹּה הַיּוֹם אִישׁ כְּלִי-הַיֶּשֶׁר בְּעֵינָיו)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신 12:8)

우리는 이 구절이 신명기 신학의 핵심에 속하는 제의의 중앙집중화에 관한 법들을 취급하고 있는 문맥인 신명기 12장 8-12절¹⁴⁾에 등장

은 ‘왕’(삿 17:6a; 18:1a; 21:25a)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사’ 혹은 ‘영웅이나 리더’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문의 핵심은 당시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백성의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곤란하다. 만일 ‘왕’과 ‘사사’의 상호교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사무엘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사사기 부록의 신학적 의미를 더 이상 파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3)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n Überlieferungen Israels*(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7), 344.

14) 신명기 12장은 통일된 본문이 아니라,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받아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행한 시대’는 제의의 중앙집중화 요구가 있기 이전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데,¹⁵⁾ 제의의 중앙집중화 계명을 위한 부정적인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기 소견대로” 제의를 드렸다는 것은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 기뻐하는 제물을 자신들이 정한 곳에서 마음대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의 장소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되는 날(신 12:9)¹⁶⁾에는 “각기 소견대로”의 제의를 금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제의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12장 8-12절이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그 증거는 8절에서 갑자기 1인칭 복수 형태(우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서론인 신명기 1-3장에 등장하는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의 일반적인 서술 방법에 일치한다.¹⁸⁾ 신명기 내지는 신명기사가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와 유사한 문장을 매우 자주 만날 수 있

여지고 있다. 12장 13-28절은 2인칭 단수형(너)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옛 계명에 속한다. 여기에 두 개의 복수형 층이 추가되었는데, 둘 다 신명기사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 12장 8-12절은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에게 돌아갈 수 있다. 12장 1-7절은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기에 더 후대의 율법적 신명기사가(DtrN)에게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12장 29-31절은 12장 1-7절과 함께 12장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데, 역시 DtrN에게 돌아가야 한다.

- 15) J. A. 소긴, 「판관기, 국제성서주석 7」,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72.
- 16)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는 신명기 12장 8-12절을 통해 좀 더 오랜 기간의 시간적 간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신 12:10)라는 문구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들을 갖추니라”(왕상 5:18)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과 평안을 희망하는 구절은 분명 솔로몬 성전 건축을 염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 17) T. 베이올라, 「신명기」, 원진희 옮김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0), 485. 이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E. Reuter, *Kultzentralisation. Entstehung und Theologie von Dtn 12*. BBB 87 (Frankfurt am Main: Peter Hanstein Verlag, 1993), 109f.; A. D. H. Mayes,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World View,” in: *Studies in Deuteronomy*, FS C. J. Labuschangne, Hg.v. Felix Garcia Martinex et al. VTS 53 (Leiden: Brill, 1994) 165-181; E. Otto,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BZAW 284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232.
- 18) T. Veijola, *윳골*, 16.

다는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는 신명기 12장 8-12절에서 사용한 동일한 편집기술을 사사기 17-21장에서도 활용하였다. 사사기 17장 6b절과 21장 25b절이 말하는 사사시대는 신명기 12장의 제의의 중앙성소화 이전의 시기와 유비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는 사사기 부록의 처음과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문장을 반복하여 첨가하였다. 이러한 편집 작업을 통해 사사기 17장 6b절은 사사기 부록의 처음에서 앞으로 일어날 주요 인물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비난하고자 하였고, 21장 25b절은 사사기 부록의 마지막에서 왕의 부재로 인하여 전(全) 사사시대가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부패와 폭력의 시대로 종결되고 말았음을 확정하고자 하였다.²⁰⁾ 두 개의 편집절은 일종의 인클로지오(inclusio)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²¹⁾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사사기 17장 6b절과 21장 25b절은 사무엘서에서 탄생될 ‘왕국’의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²²⁾ 왕권이 사사권을 대체해야 하는 역사의 운명의 시

19) 왕조의 평가와 권면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표현인 “여호와와 눈에(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다/행하지 않다”(יהוה בְּעֵינֵי יְהוָה לֵאמֹר עָשָׂה וְלֹא גֵרַם)가 거론될 수 있다(신 12:25; 13:18; 21:9; 왕상 11:33, 38; 14:8; 15:5, 11; 22:43; 왕하 10:30; 12:2; 14:3; 15:3, 34; 16:2; 18:3 22:2). 또 다른 유사한 문장도 제시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확장된 문장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신 6:18),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신 12:28), “아사가 그의 여호와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대하 14:2),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대하 31:20). ‘정직’과 유사한 의미의 ‘신, 의, 정의, 진실’과 같은 단어들 이 부가적으로 확대되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정된 형태의 문체들과 유사 단어들의 반복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언급된 본문들은 동일하게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에게 그 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과 예레미야 34장 15절에도 유사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은 이미 W. Fuss, *Die deuteronomistische Pentateuchredaktion in Exodus 3-17*. BZAW 126 (Berlin: Walter de Gruyter, 1972), 331와 W. Thiel,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26-45*. WMANT 5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38에 의해신명기사가(DtrH)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20) E. A. Mueller, *The Micah Story: A Morality Tale in the Book of Judges*,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34 (Frankfurt am Main: Lang, 2001), 105.

21) T. C. 버틀러, 『사사기』. WBC 8, 조호진 역 (서울: 솔로몬, 2011), 1043.

22) F. Cr semann,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Die antiköniglichen Texte des Alten*

간이 도래한 것이다. 우리는 사사권과 왕권의 병립의 불가능성을 사무엘과 사울에게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²³⁾ 두 개의 편집구절은 왕권의 등장이 백성들 자신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암흑기를 청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 안정과 올바른 제의를 보증할 수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²⁴⁾ 신명기사가적 편집구절들은 왕의 부재 시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통해 왕정 제도의 긍정적 도입이라는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편집절은 다윗 계열의 이상적인 왕의 등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²⁵⁾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 왜냐하면 편집절은 메시아적 왕을 기대하거나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를 보장해 줄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곧 탄생하게 될 왕국 제도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희망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대의 왕들이 거의 모두 우상숭배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두 개의 편집절이 왕정제도에 대해 긍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²⁶⁾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편집절은 아직 왕국 제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위치하고 있기에 왕들의 배교와 타락을 미리 예상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적으로 왕국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였기에 신명기사가는 왕권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가 왕권의 관점에서 사사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유지하며 신전과 그곳에서의 제의

Testamentes und der Kampf um den frühen israelitischen Staat (Neukirche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56f.

23) 김재규,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구약논단』 제 35집 (2010년 3월), 74-97.

24) R. H. O'Connell,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VTS 63 (Leiden: Brill, 1996), 10.

25) A. D. H. Mayes, "Deuteronomistic Royal Ideology in Judges 17-21," *BiblInt* 9 (2001), 241-258.

26) D. I. Block, *Judges, Ruth*. NAC 6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476. 반복적인 편집절은 오히려 왕국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만 한다는 강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삽입된 것이라고 말한다.

를 유지해서 백성들에게 안전한 거주와 경작의 권리와 기회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는 이러한 지도자의 탄생을 희망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사방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사사시대는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 줄 지도자를 제대로 소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사기의 부록이 시작되기 바로 앞 장에서 사사 삼손이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삿 16:31)과 무관하지 않다. 삼손은 자기 지파나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눈에 옳은 대로(삿 14:3, 7)²⁷⁾ 행동하면서 자기 교만과 육신의 즐거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삿 17:6b; 21:25b)라고 고발함으로써 조심스럽게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종료될 것을 희망하였다.²⁸⁾ 반복적인 편집절은 사사기의 핵심적인 결론을 맺기에 충분하였다. 사사의 사라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권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데, 왕권이 도입될 상황이 이제 제대로 성숙되었다는 것이다. 왕의 부재로 인해 초래된 도덕적인 공황상태와 종교적인 무기력함을 설명하는 두 개의 편집구절은 극도의 긴장감을 강화시키는 의도된 간주곡(間奏曲)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구현할 새로운 왕국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때에”라는 문장에는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던 그때에”가 아니라- 특별한 신명기사가의 신학이 들어있다. 신명기사가에 따르면, 사사

27) 사사기 14장 3절 마지막부분(בְּעֵינָי בָּרָהּ יָאָהֳרָא)과 14장 7절 마지막 부분(בְּעֵינָי בָּרָהּ יָאָהֳרָא)을 주의하여 읽어보라.

28) H. W. Hertzberg,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ATD 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²), 255.

는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카리스마적 구원자이고,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제이나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과제를 가진 자이다. 신명기사가 제의적이고 불법적인 악행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질서정연한 왕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신 17:14-20). 오직 아웨만을 진심으로 섬기는 의로운 왕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지 않고 아웨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²⁹⁾

2) 사사기 17-18장의 편집적 개정

사사기 17-21장이 통일된 하나의 문학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19세기 이후 계속된 문학비평적 접근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17-18장과 19-21장은 동일한 저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문학 단일체로서의 불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⁰⁾ 전자는 종교적 혼란의 와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된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향하게 된 단 지파의 이주와 관련되어 있고, 후자는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의 무서운 내전을 다루고 있다. 즉, 전자는 이스라엘의 쇠퇴라는 주제 중에서 종교적 차원을 취급하고 있고, 후자는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분에는 공통점이 있기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17-18장과 19-21장

29) T. Veijola, *윳글*, 29.

30) M. W. Bartusch, *Understanding Dan: An Exegetical Study of a Biblical City, Tribe and Ancestor*. JSOTS 37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3), 31; P. Guillaume, *Waiting for Josiah: The Judges*. JSOTS 38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4), 129.

이 각각 왕국 시대 이전의 비극적인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혼돈의 상황들(우상숭배, 국가적인 도덕성의 상실, 폭력의 증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전쟁)을 전제하고 있기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매김하기에 적합했다. 사사기 16장에는 사사기의 에필로그를 구성할만한 공식적인 문구가 없지 않은가? 둘째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들(레위인)의 슬픈 운명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에 근거하여 17-18장과 19-21장은 편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결합된 것이다.³¹⁾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삿 17:6b; 21:25b)라는 편집절을 통해 17-18장과 19-21장은 서로 내적인 관계성을 갖게 되었고, 구조적 통일성과 주제적 통일성을 이루게 되었다. 먼저 17-18장에서 만날 수 있는 편집적 개정의 흔적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1) “거류하다”(גָּר)와 “게르숨”(גֵּרֻם)

17장에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한다. 1-5절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7절부터는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이 설명되고 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헬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구절은 네 가지 측면에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그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헬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은 문법적으로 어색한 면이 있다. 전치사 ‘~로부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민’(מִן)을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둘째, 그

31) F. Crüsemann, *유타*, 155-166.

32) 그래서 BHK와 BHS는 “유다 가족에 속한”(מִן הַיְהוּדִים מִבֵּית בְּדִלְהֵם)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H. Strauss, “Untersuchungen zu den überlieferungen der vorexilischen Leviten.” *Diss., ev.-theol. Bonn* (1960), 98은 “유다 가족에 속한”을 원래적인 지방의 명칭으로 이해하였는데, 후대에 지파 이름으로 오해하여 본문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R. Nelson, *Raising Up a Faithful Priest: Community and*

는 청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나아르’(נָאֵר)는 청년이라기보다는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³³⁾ 셋째, 그는 레위인이다. 넷째, 그는 거류민이다. “거류하다”를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는 ‘가르’(גָּר)인데, 이 동사는 외국인 혹은 외지인으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³⁴⁾ 다시 말하자면, 이 레위인은 유다 예루살렘의 본토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이주해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이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예루살렘 청년(소년)이 어떻게 고향에서 이방인(타향민)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가 유다 가족의 일원인데, 어떻게 동시에 이방인(타향민)이 될 수 있는가?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가족의 일원이지, 외지에서 들어온 낯선 이방인은 아니지 않는가?

7bβ절의 “그가 거기서 거류하였더라”(וְהָיָה שָׁמָּה)는 사실상 7ba의 “그는 레위인이다”(וְהָיָה לֵוִי)와 문체론적으로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사문장의 반복을 통한 문체론적 중복은 일종의 보충적인 해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추가적인 구절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을 이방적인 거주자로 자리매김 시키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준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³⁵⁾ 유다 가족에 속하며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

Priesthood in Biblical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3), 4은 “유다 가족에 속한”을 유다의 한 가문에 속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유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해석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일부 단어들을 수정하여 본문의 문맥에 맞추려는 시도를 하였다. “유다 가족”이라는 단어 대신에 ‘모세 가족’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일부 단어들도 수정되기도 하였다. 자료설을 적용하려는 옛 학자들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두 개의 자료들이 혼합되었다고 보았다. 어떤 경우에는 7절과 8절이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기에 7절의 “거기서”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33) H. F. Fuhs, “נָאֵר” in: *TDOT IX* (1998), 474-485.

34) R. Martin-Achard, “גָּר” in: *ThHAT 1* (1984), 409-412; D. Kellermann, “גָּר” in: *TDOT II* (1999), 439-449; 최종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 56집 (2015년 6월), 122-154; 소형근, “역대기역사서에 나타난 이방인 이해.” 「구약논단」, 제 44집 (2012년 6월), 158-177.

35) T. Veijola, *룻*, 18

인은 가장 평안함을 느껴야 하는 곳에서 이방의 거류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7bβ절의 “그가 거기서 거류하였더라”(עָשָׂה הוּא שָׁמָּה)는 사실상 유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시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לָנוּר בְּאֶשֶׁר יִמְנָא) 성읍을 떠난다는 바로 뒤의 8절의 내용과도 상호 모순적이다.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유다 베들레헬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외지인(גֵּ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편집절로 간주될 수 있는 7bβ절의 “그가 거기서 거류하였더라”(עָשָׂה הוּא שָׁמָּה)는 신명기 18장 1-8절의 레위 제사장 직제 규정³⁶⁾안에 위치하고 있는 한 절과 완벽한 문장상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자:³⁷⁾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עָשָׂה הוּא שָׁמָּ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신 18:6) 두 본문의 단어상의 평행성은 사사기 17장 7bβ절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 구절은 신명기사가 (DtrH)에 의한 편집과정에서 신명기 18장 6절에서부터 넘겨받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끌고 있다.³⁸⁾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보면 “거류하다”(גֵּר)라는 단어와 관련된 3대에 걸친 한 짧은 족보를 만나게 되는데,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익명의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גֵּרְשֹׁם)의 아들인 요나단”(삿 18:30b)이

36) 신명기 18장 1-8절의 레위 제사장 직제 규정은 신명기 법전(12-26장)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신명기 전체의 구조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규정 앞에는 왕에 대한 규정(17:14-20)이 있고, 뒤에는 예언자에 대한 규정(18:9-22)이 등장한다.

37) A. Cody, *A History of Old Testament Priesthood*. AnBib 35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69), 54-61.

38) T. Veijola, *유태*, 18. 사사기 17장에서 신명기사가의 편집 작업은 신명기에서 묘사된 레위인상과는 좀 다른 레위인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신명기에서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은 객, 노비, 과부, 고아와 함께 언제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인간’(personae miserae)이며, 주위 사람들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신 12:12, 18, 19; 14:27, 29; 16:11, 14; 26:11, 12, 13). 레위인을 향해 도움을 준 자들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다양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신 14:29). 그런데 이 모티프는 사사기 17장 13절에서 변형되었는데, 미가가 한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진술이다. 지금까지 무명의 인물로 등장했던 레위인의 이름이 요나단으로 여기서 처음 명명되고 있는데, 사건 보도의 말미에 놀랄만한 족보가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은 편집적인 흔적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뜻이다.³⁹⁾ 요나단의 아버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소개한 것은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⁴⁰⁾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편집적인 목적을 찾아보자.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는 이 간단한 족보의 삽입과 소개를 통해 모세가 이방에서 나그네(객)가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지은 이름인 그의 아들 게르솜을 생각해낸 것이다(출 2:22; 18:3).⁴¹⁾ 각 지역을 떠도는 일은 모든 레위인의 타고난 속성이기 때문에 편집자는 사사기 18장 30b절의 추가적인 보충을 통해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단 지파 제사장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⁴²⁾

(2) 단 지파는 그 때에(בְּיָמֵינוּ הָהֵם שָׁבְטָנוּ הַזֶּה)

위에서 얻은 분석의 결과들이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사기 17-18장 안에서 신명기사가적 편집의 흔적들을 더 많이 찾아내야

39) 단 지파의 제사장 이름에 이스라엘 초기 역사의 인물인 모세와 그의 아들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객관적 사실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BHS는 '모세(מֹשֶׁה)' 대신에 히브리어 자음 눈(א)을 반올림으로 삽입하여 '므낫세(מְנַשֶּׁה)'로 읽을 것을 권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형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신상을 세우는 혐오스러운 불신앙적인 행위와 유다의 대표적인 우상숭배자인 므낫세 왕(왕하 21:1-18)을 관련시키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인 모세의 거룩한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의원/민영진 공저, *룻글*, 605; J. Gray, *Joshua, Judges and Ruth*.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eries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1967), 347; R. G. Boling, *Judges*. Anchor Bible Series 6A (Garden City: Doubleday, 1975), 266.

40) J. A. 소긴, *룻글*, 387.

41) G. Yee,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in: *Judges and Method*. Ed. G. Yee, 146-170는 족보의 숨겨진 의도를 정치적 맥락에서 생각하였다. 이 족보는 경쟁자 관계에 있던 예루살렘 제사장 권력구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나단의 족보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있는데, 예루살렘 제의는 모세 가문의 제사장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 가문의 제사장권에 속한다는 선언이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삿 18:30b)은 혐오스러운 단에서의 새긴 신상 숭배의 모습을 모세의 가문과 연결시킴으로 아론 가문의 예루살렘 제사장적 당위성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42) T. Veijola, *룻글*, 20.

한다. 우리는 18장 1절에서 문체론적이고 연대기적으로 부적합한 표현들을 만나게 되는데, 진정성에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⁴³⁾

18:1a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בַּיָּמִים הָהֵם אֵין מֶלֶךְ בְּיִשְׂרָאֵל)
 1b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וּבַיָּמִים הָהֵם שָׁבַט הַרְגָּבִי מִבְּקָשׁ-לוֹ נַחֲלָה לְשָׁבֵת)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

먼저, 문체론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 18장 1b절은 단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해야 하는 역사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그 때에”라는 시간 규정은 어색하고도 불필요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시간 구문의 반복과 평행은 자연스러운 문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적인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18장 1b절은 18장 1a절을 문체론적으로 모방하면서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⁴⁴⁾ 18장 1b절은 단 지파를 새롭게 등장시킴으로 레위인과 미가의 신상 이야기(17장)가 단 지파가 영토를 찾는 이야기(18장)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편집 구절은 시체의 일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말았는데, 완료형 문장에서 피엘 분사형 문장(מִבְּקָשׁ)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그리고 여기서 ‘지파’라는 단어를 위해 히브리어 ‘셰베트’(שָׁבֵת)가 사용되었는데, 사사기의 다른 구절들은 ‘지파’를 위해 항상 ‘미쉬파하’(מִשְׁפָּחָה)가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삿 13:2; 17:7; 18:2, 11, 19). 단지 18장 19절에서만 ‘셰베트’(שָׁבֵת)가 언

43) 사사기 18장 1절 전체를 편집절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다. E. Täubler, *Biblische Studien: Die Epoche der Richter*. Ed. H. J. Zobel (Tübingen: Mohr Siebeck, 1998⁵), 44은 1b절만을 편집절로 간주하고 있다.

44) H. W. Hertzberg, *룻*, 108.

45) T. C. 버틀러, *룻*, 890.

급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미쉬파하’(מִשְׁפָּחָה)와 나란히 위치하면서 불필요한 중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18장 1b절의 ‘세베트’(טַבַּח)는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에게 돌아가야 한다.⁴⁶⁾ 신명기사가의 역사서 안에서 ‘세베트’(טַבַּח)는 언제나 ‘지파’를 의미하는 상위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신 1:13, 15; 3:13; 수 1:12; 삼상 2:28; 왕상 8:16; 왕하 17:18). 이와는 달리 ‘미쉬파하’(מִשְׁפָּחָה)는 신명기사가의 역사서 안에서 언제나 ‘지파’의 하부단위인 ‘가족’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삿 18:2, 11; 삼상 10:21).⁴⁷⁾

두 번째 문제점은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삿 18:1b)는 내용은 역사적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⁸⁾ 단 지파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에 베냐민의 서편 지역 영토를 분배받았다(수 19:40-48). 사사 삼손 이야기를 보면, 단 지파 사람들은 소라와 에스다울 지역에 살고 있었다(삿 13:2, 25).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는 것은 역사적 허구이며 연대기적 흐름을 중단시키고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⁴⁹⁾ 더 나아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לֹא־נָתַן לָנוּ אֶת־הַיְרֵדָה)는 포로기 이전의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에 속한다.⁵⁰⁾ 모든 가능성을 따져볼 때 사사기 18장 1b절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점유와 분배의 역사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단 지파의 이주를 그 안에 배열시키려는 신명기사가에 의한 설명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는 엄격한 연대기적 방식에 엄매하지 않고, 단 지파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 다섯 사람을 보내는

46) T. Veijola, *율글*, 20.

47) H.-J. Zobel, “מִשְׁפָּחָה” in: *TDOT IX* (1998), 79-85.

48) P. Guillaume, *Waiting for Josiah: The Judges*. JSOTS 38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4), 138-142. H. M. Niemann, *Die Daniten: Studien zur Geschichte eines Altisraelitischen Stammes*. FRLANT 13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143-150.

49) Y. Amit, “Hidden Polemic in the Conquest of Dan: Judges XVII-XVIII,” *VT* 40 (1990), 4-20.

50) 갈(Gal) 형태로는 민수기 34장 2절(P 문서)과 에스겔 47장 1절에 등장한다. 히필(Hiphil) 형태로는 신명기사가의 역사서에 속하는 여호수아 13장 6절과 23장 4절에 언급되고 있다.

이야기를 왕이 없는 시대의 정치적 나약성과 결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종교적인 타락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단 지파는 기업도 얻지 못한 쇠퇴한 지파이며, 온전한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3) 미가의 신상과 실로 성소

사사기 17-18장에서 신상(神像)은 왕이 없던 시대의 종교적 타락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장색(銀匠色, 금이나 은 따위의 세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은 이 백을 주고 새긴 신상(פֶּסֶל)과 부어 만든 신상(מִסֻּכָּה)⁵¹⁾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두었다(삿 17:1-4). 그런데 5절은 갑작스럽게 두 번의 연속적인 명사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사건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미가와 관련된 세 가지의 개인적인 특징들을 지나치고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וְהָאִישׁ מִיכָה לֹו בַיִת אֱלֹהִים, 17:1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וַיַּעַשׂ אִפֹּוד וְתַרְבִּים, 17:2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וַיְמַלֵּא אֶת־יָד אֶחָד מִבְּנָיו וַיְהִי־לוֹ לַחֵן, 17:3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⁵²⁾

51) 페셀(פֶּסֶל)은 동사 '파살'(פָּסַל, 자르다)에서 나온 단어로 돌이나 나무에 새겨 만든 신상을 의미하며, 마세카(מִסֻּכָּה)는 동사 '나사크'(נָסַךְ, 붓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금속 등을 녹여 조형 틀에 부어 만든 신상을 가리킨다. J. M. Hadley, "פֶּסֶל" in: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ume 3 (Michigan: Grand Rapids, 1997), 644-646; J. M. Hadley, "מִסֻּכָּה" in: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ume 2 (Michigan: Grand Rapids, 1997), 1000-1001. 사사기 18장 17절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52)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 중의 하나의 손을 채웠다"이다. 이러한 표현은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사용하는 관용적인 문장이다(출 28:41; 29:9, 29, 33, 35; 32:29; 레 8:33; 16:32; 21:10; 민 3:3; 왕상 13:33).

그동안 학자들은 1-4절과 5절 사이의 내용상의 불일치성에 대해서 지적해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5절은 1-4절의 내용을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편집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미가는 신상을 주도적으로 소유한 인물이 절대 아닌 자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5절에서 미가는 갑자기 신상의 실제적 소유자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가는 신당(בֵּית אֱלֹהִים)의 소유자이며, 직접 에봇⁵³⁾과 드라빔도 제작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한 자이다.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4절)은 5절에서 갑자기 미가의 신상으로 소개되었다. 미가가 자신의 아들들 중의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설명은 매우 당황스러운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행위는 여로보암 1세의 죄악(왕상 12:31)을 연상시키고 있다. 10절과 13절을 참고해보면, 미가는 레위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떠한 제사장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5절의 편집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5절은 1-4절에서 사용했던 원래의 이름인 ‘미가예후’(מִיכָיָהוּ)에서 여호와와의 축약형 예후(יְהוָה)를 삭제한 ‘미가’(מִיכָיָה)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⁴⁾ 이름에 아웨를 향한 경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가지고 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주인공의 이름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가라는 주인공을 아웨 혹은 아웨 신앙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만들려는 편집자의 섬세한 신학적 의도를 확인할

53) 에봇은 대체사장이 입는 옷(출 28장; 레 8장)이며 아웨의 응답을 구할 때에는 우리과 돌뭉과 같은 신탁의 수단이었는 데, 왜 본문에서는 드라빔(아마도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던 조상 모양의 신상들과 함께 우상숭배를 위한 경멸스러운 물건으로 등장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P. D. Miller,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Library of Ancient Israel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0), 56. 아마도 여기서 에봇은 대체사장이 입는 거룩한 의복이 아니라, 우상의 의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J. S. Bray, *Sacred Dan: Religious Tradition and Cultic Practice in Judges 17-18*. Library of Hebrew Bible/ Old Testament Studies 449 (New York: T & T Clark, 2006), 112-118.

54) 한글 개역개정본은 처음부터 ‘미가’로만 번역하고 있다.

수 있다.⁵⁵⁾

“하나님의 집(בֵּית־הָאֱלֹהִים)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פֶּסֶל)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삿 18:31)라는 구절은 17장 5절을 추가한 편집자의 손길이 여기에서도 계속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구절은 중앙성소의 역할을 담당했던 실로(Silo)의 파괴를 이미 알려진 것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18장 31절은 실로에서 그리고 실로 주변에서 일어날 불행한 사건들(삼상 1-4장)을 준비하는 신명기사가적 역사서술가(DtrH)에게 돌아가야 하는 구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8장 31절에서 실로에 있는 야웨의 성소는 ‘하나님의 집’(בֵּית־הָאֱלֹהִים)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17장 5절에 있는 미가의 제의장소는 ‘신당’(בַּיִת אֱלֹהִים)이다. 정관사 ‘하’(ה)가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미가는 야웨를 모시는 합법적인 성소가 아니라, 미가가 직접 만든 우상(삿 18:24, 27)을 섬기는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진짜 성소는 실로에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신명기사가는 미가가 만들어 둔 제의 신상을 제조된 우상 그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신 27:15)이기 때문이다. 이제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의도는 분명해졌다. 왕이 없던 시대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했다는 것이다. 단은 실로와 제의적으로 강하게 대비되고 있는 제의장소로 자기들 소견대로 새긴 신상에게 제사한 우상숭배의 도시이다. 레위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전쟁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았고, 단 지파 사람들은 실로에 법궤가 현존하고 실로가 중앙 성소의 역할을 담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불법적인 제의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8장 31b절은 바로 앞 절에 진술된 “그 땅

55) E. A. Mueller, *유타* 515.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삿 18:30b)⁵⁶⁾의 은폐된 신학적인 심판 이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가의 신상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18장 31절을 통해 단에 세워진 미가의 신상을 배교적 도전으로 판정하고, 단 지파 사람들의 우상숭배 행위를 격렬하게 조롱하고 있다.⁵⁷⁾

3) 사사기 19-21장의 편집적 개정

신명기사가적 편집절에 속하는 사사기 17장 7절은 유다 베들레헬에서 거류하던 한 레위인을 소개하였는데, 놀랍게도 사사기 19장 1b절 역시 유사한 문체로 앞으로 전개될 불행한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들과 장소적 배경을 동일한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19:1a וַיְהִי בַּיּוֹמִים הָהֵם וַיִּמְלֹךְ אֵין בְּיִשְׂרָאֵ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대에

1b וַיְהִי אִישׁ לְוִי גֵר בְּיַרְכְּתֵי הַר־אֶפְרַיִם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וַיִּקְחֵהֶם אִשָּׁה פִּילְגֶשֶׁת מִבֵּית יְהוָה

유다 베들레헬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9장 1b절은 17장 7절의 “레위인, 유다 베들레헬, 거류하다”라는 단

56) 이 때의 연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B. G. Wood, "From Ramesses to Shiloh: Archaeological Discoveries Bearing on the Exodus-Judges Period," in *Giving the Sense*. Ed. D. M. Howard, Jr., and M. A. Grisanti (Grand Rapids: Kregel, 2003), 256-282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단이 파괴된 연대를 기원전 1050년으로 보고 있다. 반면 J. S. Bray, 윗글, 21-23는 북 왕국의 멸망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T. Veijola, 윗글, 20은 디글랏빌레셀 3세가 북왕국 지역을 공격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기원전 733년의 출정(出征)과 관련시키고 있다.

57) Y. Amit, 윗글, 318, 사사기 18장 31절은 여로보암 1세가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세운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들을 반복하고 있다. 19-21장에서 펼쳐질 사건의 새로운 등장인물 역시 레위인이며,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류하고 있었다(73).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레위인은 종교적 전문성을 소유한 자로 인정되고 있지만, 결코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비슷하다. 유다 베들레헬은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도시이며,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의 고향이기도 하다(삿 17:7). 물론 몇 가지 다른 점도 있다. 여기서 레위인은 소년(77)이 아니라, 성인 남자(78)이다. 17-18장에 등장한 레위인의 이름은 요나단으로 밝혀졌지만(삿 18:30), 19-21장은 레위인의 이름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19장 1b절에는 레위인 이외에 여성 등장인물이 언급되었는데, 그녀는 레위인의 첩(79)이다. 그녀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불량배들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은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발생한 무서운 동족상잔의 도화선이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17-18장과는 달리 19-21장의 등장인물들은 -비느하스(삿 20:28)⁵⁹⁾를 제외하면- 모두 무명이라는 점이다.⁶⁰⁾ 등장인물들은 모두 무명의 사람들이고, 지명들만이 정확한 이름

58) “첩”(79)은 첫 번째 정 부인이 아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부인을 의미한다. V. H. Mattews and D. C. Benjamin, *Social World of Ancient Israel 1260-587* (Peabody MA: Hendrickson, 1993), 14. 일반적으로 본처의 불임으로 인해 가문의 아들을 전수할 목적이든지 남성의 성적만족을 위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 본문은 본처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고, 레위인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첩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욕보이도록 넘겼다고 보도한다. 이것은 레위인이 첩을 성적 노리개로 간주했음을 의미하며, 여성의 성에 대해 폭력적으로 지배하였음을 말한다. 레위인의 비윤리적 인간성을 증거하고 있다. J. C. Exum, “Feminist Criticism: Whose Interest Are Being Seved?” in: *Judges and Method*, Ed. G. A. Yee, 65-90.

59)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 등장할 뿐이지, 레위인 첩의 살해사건과 관련되어 행동하는 사건의 가담자는 아니다.

60) D. M. Hudson, “Living in a Land of Epithets: Anonymity in Judges 19-21,” *JSOT* 62 (1994), 49-66은 사사기 19-2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익명성은 범죄자들과 희생자들의 개인성과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D. I. Block, “Echo Narrative Technique in Hebrew Literature: A Study of Judges 19,” *WTJ* 52 (1990), 325-341은 등장인물들의 익명성은 그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비인격화되었음을 증거 하는 것이고, 사사기 19-21장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지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을 제공하고 있다. 19-21장에서 레위인은 주로 “그녀의 남편”(삿 19:3; 20:4), “그의 사위”(삿 19:5), “그 사람”(삿 19:6, 7, 9, 10, 25), “주인”(삿 19:11, 12, 26, 27), “나그네”(삿 19:17), “이 사람”(삿 19:23, 24)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19-21장에서 레위인은 부차적인 정체성만을 지니고 있다. ‘레위인’이라는 단어는 단 두 번만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삿 19:1; 20:4). ‘레위인’이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은 특히 베냐민 지파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사에 신뢰성을 부여하려는 차원에서만 나타나고 있다.⁶¹⁾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사사기 19장 1b절에서 신명기사가(DtrH)의 탁월한 편집기술을 만날 수 있다.⁶²⁾ 편집자는 17장 1b절에서 새로 등장하는 인물을 레위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레위인’은 17-18장의 종교적 사건과 19-21장의 윤리적 사건을 긴밀하게 묶어주는 중추적인 공통분모가 되었고, 단 지파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우상숭배 행위와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에 의한 악행 모두 레위인을 향한 불경건한 사건이 되도록 시도하였다. 그리고 잔인한 죽임을 당하게 될 여인을 레위인의 첩으로 소개함으로써 그녀의 살해 사건은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의 극심한 도덕적 타락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로 읽혀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레위인을 향한 기브아 남자들의 악행은 더욱 극악무도한 범죄로 부각되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향한 복수와 심판은 훨씬 더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헬’

61) Y.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Trans. J. Chipman (Leiden: Brill, 2000), 179.

62) 사사기 19장 30절에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상투적인 어투가 등장하고 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וְהַיּוֹם הַזֶּה אֲנִי מֵעֵינַי מִצְרָיִם עַל־כֵּן וְעַתָּה אֲנִי מֵעֵינַי מִצְרָיִם) 그런데 이와 동일한 문장이 신명기사와 신명기사가의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신 9:7; 삼상 8:8; 삼하 7:6; 왕상 8:16; 왕하 21:15). 이 구절은 신명기사가의 역사서술가(DtrH)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동규, “신명기의 역사적 사유와 신학,” 『구약논단』 제 39집 (2011년 3월), 12-32. 일부 학자들은 뱀엘의 여호와 앞에 모여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반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구절들(삿 20:18, 23, 26; 21:2)이 매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명기사가의 역사서술가(DtrH)에게 돌리고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뱀엘은 신명기사가의 역사서에서 언제나 불법적인 제의가 행해지는 배교와 타락의 대표적인 도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왕상 12:26-33; 왕하 23:15).

과 ‘에브라임 산지’는 17-18장과 19-21장에서 각각 발생한 두 불행한 사건의 동일한 무대로 소개되었다. 이 단어들은 17-18장과 19-21장의 문체적 밀접성을 고양시키고, 사건의 계속성을 확인시키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편집자는 19장 1b절에서 17-18장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재활용함으로써 17-18장과 19-21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노력하였다. 19장 1b절은 일종의 편집적 고리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4.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의 분석 작업을 통해 사사기의 ‘부록’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사기 17-21장이 현재의 위치로 들어오게 된 것은 신명기사가 이후의 편집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얻어냈다. 사사기 17-21장을 신명기사가의 편집 작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중요한 근거는 이 본문들이 사사 시대의 역사를 묘사하는 신명기사가의 전형적인 신학도식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물론 사사기 17-21장은 “이스라엘의 범죄-야웨의 분노-적들의 침략-백성들의 고통의 호소-사사의 등장으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도식에 전혀 맞지 않으며,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명의 사사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시대의 범위를 사울 왕국이 탄생하기 직전의 본문인 사무엘상 7장까지로 확대시켜 본다면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내용적으로 볼 때 사무엘상 1-7장은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명기사가의 역사서라는 전체의 틀 안에서 사무엘상 1-7장을 사사기 17-21장과 연결하여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사’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도하고 있고, 법궤 이야기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4-6장은 블레셋에 의한 침략과 야웨의 현존의 상징인 법궤

의 상실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무엘상 1-7장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순환구조 도식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명기사가(DtrH)의 기본적인 역사 이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웨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방 적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사기 17-21장과 사무엘상 1-7장을 연결하여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사사 삼손 이야기(삿 13-16장)의 마지막 절은 그의 죽음을 언급하였다(삿 16:31). 사무엘상 4-6장은 블레셋에 의한 군사적인 패배와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신명기사가의 역사 신학에 따르면, '사사의 죽음'과 '군사적인 패배'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악행이 반드시 등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타락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무엘상 1-3장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사기 17-21장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타락 사건들이 신명기사가의 역사서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사사 삼손이 죽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삿 19:30)고 고백할 정도로 전대미문의 불미스러운 죄악의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사사기 17-21장은 신명기사가의 필수적인 순환구조 도식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레위인과 관련된 범죄들은 단순한 지역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초래하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고도 심각한 범죄였던 것이다.

5. 참고문헌

김의원/민영진 공저, 「사사기/룻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

- 넘 성서주석 7」(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재구,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구약논단」 제 35집 (2010년 3월), 74-97.
- 소형근, “역대기역사서에 나타난 이방인 이해,” 「구약논단」 제 44집 (2012년 6월), 158-177.
- _____,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조직들과 재판관들,” 「구약논단」 제 56집 (2015년 6월), 155-175.
- 장석정, “사사기의 순환구조 재고,” 「신학논단」 제 84집 (2016년 6월), 137-162.
- 정석규, “왕의 법(신 17:14-20)의 이중적 기능,” 「구약논단」 제 34집 (2009년 12월), 30-50.
- 최종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 56집 (2015년 6월), 122-154.
- 버틀러, T. C., 「사사기. WBC 8」, 조호진 역 (서울: 솔로몬, 2011).
- 베이올라, T., 「신명기」, 원진희 옮김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0).
- 소긴, J. A., 「판관기. 국제성서주석 7」,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Amit, Y., “Hidden Polemic in the Conquest of Dan: Judges XVII-XVIII,” *VT* 40 (1990), 4-20.
- _____,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Trans. J. Chipman (Leiden: Brill, 2000).
- Bartelmus, R., “Forschung am Richterbuch seit Martin Noth,” *ThR* 56 (1991), 221-259.
- Bartusch, M. W., *Understanding Dan: An Exegetical Study of a Biblical City, Tribe and Ancestor*. JSOTS 37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3).
- Becker, U., *Richterzeit und Königtum. Redaktionsgeschichtliche*

- Studien zum Richterbuch*. BZAW 192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 Block, D. I., "Echo Narrative Technique in Hebrew Literature: A Study of Judges 19," *WTJ* 52 (1990), 325-341.
- _____, *Judges, Ruth*. NAC 6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 Boecker, H.-J., *Die Beurteilung der Anfänge des Königtums in den deuteronomistischen Abschnitten des 1. Samuelbuches. Ein Beitrag zum Problem des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WMANT 3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 Boling, R. G., *Judges*. Anchor Bible Series 6A (Garden City: Doubleday, 1975).
- Bray, J. S., *Sacred Dan: Religious Tradition and Cultic Practice in Judges 17-18*. Library of Hebrew Bible/ Old Testament Studies 449 (New York: T & T Clark, 2006).
- Budde, K., *Das Buch der Richter*. KHCAT (Freiburg: Verlag von J. C. B. Mohr, 1897).
- Cody, A., *A History of Old Testament Priesthood*. AnBib 35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69).
- Cr semann, F., *Der Widerstand gegen das Königtum. Die anti-königlichen Texte des Alten Testaments und der Kampf um den frühen israelitischen Staat* (Neukirche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Dietrich, W., *Prophetie und Geschicht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FRLANT 10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1972).
- Exum, J. C., "Feminist Criticism: Whose Interest Are Being Served?" in: *Judges and Method*, Ed. G. A. Yee, 65-90.
- Fuhs, H. F., "נָעַר" in: *TDOT IX* (1998), 474-485.
- Fuss, W., *Die deuteronomistische Pentateuchredaktion in Exodus 3-17*. BZAW 126 (Berlin: Walter de Gruyter, 1972).
- Gray, J., *Joshua, Judges and Ruth*.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eries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1967).
- Guillaume, P., *Waiting for Josiah: The Judges*. JSOTS 38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2004).
- Hadley, J. M., "פָּסָל" in: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ume 3 (Michigan: Grand Rapids, 1997), 644-646.
- _____, "מִסְכָּה" in: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ume 2 (Michigan: Grand Rapids, 1997), 1000-1001.
- Hertzberg, H. W.,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ATD 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⁶).
- Hudson, D. M., "Living in a Land of Epithets: Anonymity in Judges 19-21," *JSOT* 62 (1994), 49-66.
- Jüngling, H.-W., "Propaganda für das Königtum. Die Tendenzgeschichte in Ri. 19," *BiKi* 38 (1983), 63-65.
- Kellermann, D., "נִיר" in: *TDOT II* (1999), 439-449.
- Lapsley, J. E., "A Gentle Guide: Attending to the Narrator's Perspective in Judges 19-21." in: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39-67.

- Martin-Achard, R., “נָדָר” in: *ThHAT* 1 (1984), 409-412.
- Mattews V. H. and Benjamin D. C., *Social World of Ancient Israel* 1260-587 (Peabody MA: Hendrickson, 1993).
- Mayes, A. D. H.,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World View,” in: *Studies in Deuteronomy*, FS C. J. Labuschangne, Hg.v. Felix Garcia Martinex et al. VTS 53 (Leiden: Brill, 1994).
- _____, “Deuteronomistic Royal Ideology in Judges 17-21,” *BibInt* 9 (2001), 241-258.
- Miller, P. D.,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Library of Ancient Israel*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0).
- Mueller, E. A., *The Micah Story: A Morality Tale in the Book of Judges*.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34 (Frankfurt am Main: Lang, 2001).
- Nelson, R., *Raising Up a Faithful Priest: Community and Priesthood in Biblical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3).
- Niehr, H., *Herrschen und Richten. Die Wurzel p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Würzburg: Echter Verlag, 1986).
- Niemann, H. M., *Die Daniten: Studien zur Geschichte eines Altisraelitischen Stammes*. FRLANT 13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67³).
- _____, “Der Hintergrund von Ri. 17-18,” in: ders., *Aufsätze zur*

- biblischen Landes- und Altertumskunde 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1), 133-147.
- O'Connell, R. H., *The Rhetoric of the Book of Judges*. VTS 63 (Leiden: Brill, 1996).
- Otto, E.,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BZAW 284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 Rad, G. von,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I. Die Theologie der geschichtlichen Überlieferungen Israel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7⁹).
- Reuter, E., *Kultzentralisation, Entstehung und Theologie von Dtn 12*. BBB 87 (Frankfurt am Main: Peter Hanstein Verlag, 1993).
- Richter, W., *Die Bearbeitungen des "Retterbuches" in der deuteronomischen Epoche*, BBB 21 (Bonn: Peter Hanstein Verlag GMBH, 1964).
- Smend, R., "Das Gesetz und die V lker. Ein Beitrag zur deuteronomistischen Redaktionsgeschichte,"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FS G. von Rad*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494-509.
- Strauss, H., "Untersuchungen zu den Überlieferungen der vorexilischen Leviten." *Diss., ev.-theol. Bonn* (1960).
- Sweeney, M. A., "Davidic Polemics in the Book of Judges," *VT* 47 (1997), 517-529.
- Talmon, S.,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Proceedings of the 5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eds., by Pinchas Peli et al (Jerusalem: Hachohen, 1969),

242-243.

Täubler, E., *Biblische Studien: Die Epoche der Richter*. Ed. H. J. Zobel (Tübingen: Mohr Siebeck, 1998⁵).

Thiel, W.,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26-45*. WMANT 5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Veijola, T.,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AASF,B 198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7).

Wong, G. T. K., *Compositional Strategy of the Book of Judges: An Inductive, Rhetorical Study*. VTS 111 (Leiden: Brill, 2006).

Wood, B. G., "From Ramesses to Shiloh: Archaeological Discoveries Bearing on the Exodus-Judges Period," in: *Giving the Sense*. Ed. D. M. Howard, Jr., and M. A. Grisanti (Grand Rapids: Kregel, 2003).

Yee, G.,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in: *Judges and Method*. Ed. G. Yee, 146-170.

Zobel, H.-J., "מִשְׁפָּחָה" in: TDOT IX (1998), 79-85.

검색어

사사기 17-21장

사사기의 순환구조

신명기사가(DtrH)

www.kci.go.kr

신명기사가의 역사
반왕권적 신학과 친왕권적 신학
제의의 중앙집중화

Judges 19-21 and Pro-monarchical Theology

Hee-Hak Lee,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Scholars generally believe that Judges 17-21 is an additional product of pro-monarchical theology which attempts to provide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the monarchy in the kingdoms of Israel and Judah as well as a theological judgment upon the religious and ethical corruption of the period of Judges, and that it was written after the period of Deuteronomistic redactional work. In other words, they contend that there is no Deuteronomistic editorial work in Judges 17-21. However, is Judges 17-21 is really an additional text and without any relation to Deuteronomistic edition?

The traditional viewpoint that Judges 17-21 is an additional text added after the Deuteronomistic edition being finished, is not conclusive. There are some Deuteronomistic editorial statements such as “all the people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17:6b; 21:15b); “residing” (17:7), “Gershom” (18:30),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Danites” (18:1b), and “Micah’s idols” and “Shiloh” (17:5) in Judges 17-18; “Levite,” “Bethlehem in Judah,” “residing” (19:1), and so on in Judges

www.kci.go.kr

19-21. Previously, Judges 17-21 was not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work of the Deuteronomist because this text does not express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theological viewpoint. Of course, Judges 17-21 does not follow the theological literary formation of “Israel’s corruption—YHWH’s rage—enemy’s invasion—suffering of the people and their cry—salvation by Judge’s activity” since there is no judges in the text.

However, if we extend the outset of the Judges’ period to 1 Samuel 7 when Saul’s dynasty was not yet born, the result is entirely different. In this context, 1 Sam 1-7 reports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Judges to monarchy. Then, in the whole context of Deuteronomistic History, we need to connect 1 Samuel 1-7 with Judges 17-21. First Samuel 1-3 reports ‘judge’ Samuel’s young age period, and 1 Samuel 4-6 (the first half of the narrative of God’s Ark) deals with the themes of the Philistines’ invasion and the loss of the Ark of God, which is the symbol of YHWH’s presence. First Samuel 1-7 can be shown to be loosely connected with Judges’ theological formation. The Deuteronomistic understanding of history is that sins of the Israelite put them into the hands of the enemy, and that judges sent by God save them, but that the Israelite sin again. In that case, Judges 17-21 and 1 Samuel 1-7 can be connected. At the end of the story of Samson (Judg 13-16), the text reports Samson’s death (Judg 16:31). First Sam 4-6 describes their military defeat by the Philistine and their loss of the Ark of God. According to Deuteronomistic History, Israel’s sinful behaviors must appear between ‘judge’s death’ and ‘military defeat’ because 1 Samuel 4 does not mention any problems of religious corruption in Israel. Moreover, the subject of 1 Samuel 1-4 is the story of Samuel’s young age, suggesting that their religious corruption must occur before

Samuel's birth and early life.

Israel's religious and ethical corruption in Judges 17-21, working as a model of faithlessness, provides the basis of what the Deuteronomistic History criticizes. The events which happened after Samson died, are recorded as "a thing ever happened since the day that the Israelite came up from the land of Egypt until this day?" (Judg 19:30). Judges 17-21 works well in the theological forma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The crime story related to the Levite is not simply a local scandal but a grave and severe crime which results in Israel's fatal defeat by the Philistine.

Keywords

Judges 17-21

Cyclical Structure of the Book of Judges

Deuteronomist(DtrH)

Deuteronomistic History

Anti-monarchical and pro-monarchical Theologies

Cultic centralization

- 투고일: 2016년 9월 9일
- 심사일: 2016년 10월 19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3일

www.kci.go.kr